

보 도 설 명 자 료

(’22. 7. 19)

수신 :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

제목 : 정부는 어려움에 처한 원전산업 생태계의 조속한 복원을 위해
최대한 빠르게 일감을 공급하고,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도 강력하게 추진할 것임

(7.19일자 동아일보 「‘탈원전 5년’ 일감 끊긴 中企 “신한울 공사때까지
어떻게 버티나”」 보도에 대한 설명)

1. 기사내용

□ ‘탈원전 5년’ 일감 끊긴 中企 “신한울 공사때까지 어떻게 버티나”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 정부는 어려움에 처한 원전산업 생태계의 정상화와 조속한 복원을
위해 최대한 빠르게 일감을 공급하고, 금융애로 해소에 나서는 한편,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도 강력하게 추진할 것임

○ 금년중에는 1,300억원 규모의 추가적인 일감을 빠르게 공급할 예정
이며, 최대한 조기에 계약을 체결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중임

* 아울러 예비품, 안전투자 설비 보강 등 ‘25년까지 1조원 이상을 추가 공급할 예정임

○ 특히, 일감공급 규모가 큰 신한울 3·4호기 재개는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이미 시작하였으며, 관련 절차를 최대한 효율화하여 ’24년에는 실제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 이와 병행하여 건설에 착수하기 전에 필요한 기기 등을 미리 제작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관련한 기기, 물품 등의 사전제작 발주 시점도 최대한 앞당겨, 일감이 조기에 공급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임

- 원전 협력업체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현재 정책자금 500억원 공급을 위해 6.30일부터 지원대상 기업을 모집중이며, 7.11일에는 5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신설하고 보증대상 기업의 신청을 받고 있음

⇒ 정부는 현재 계획된 일감 공급물량과 금융지원을 최대한 빠르게 지원할 계획임

□ 아울러, 정부는 원전수출과 원전산업 생태계의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음

- 체코, 폴란드 등 원전사업자 선정이 가까워진 국가에 대해 민관합동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가동하고 있으며, 산업패키지 마련 등 원전 수주자산을 결집하여 수출가능성을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

- 첨단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년중 6,700억원 규모의 R&D를 지원하고, 고준위 방폐물 융합대학원 신설 등 부족한 전문인력 양성도 집중 추진

- SMR(소형모듈원전) 시장에서도 독자적 기술력과 제작·시공능력 확보를 위해 '28년까지 4,000억원 투자 계획

※ 문의 : 원전산업정책과 김규성 과장(044-203-5320) / 이현두 사무관(5321)